

아시아 공동체론 강의 후기

영어영문학과 이보은

아시아 공동체론을 듣기 전 아시아 공동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할 뿐더러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 강의에서 말하려는 공동체라는 것이 어느 분야에 있어서 공동체 형성을 말하는 것인지 또 공동체 형성의 목적은 무엇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단순히 놓고 봤을 때 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아니, 너무 단순하고 이상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운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역사문제에 있어 갈등을 빚고 있고 역사문제를 넘어 경제, 정치까지 그 갈등이 연결되어 있는데 전 아시아 지역이라면 그 갈등의 연결고리가 한일 관계보다 여러 분야, 여러 국가에 걸쳐 더 복잡하게 얽히고설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나의 생각은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고 아시아 공동체 형성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에서는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 필요한 역사적 배경이나 지역 간 관계, 현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각국의 행보 등에 대해 다루었고 그 분야는 경제, 문화, 안보, 무역 등을 넘나들었다.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은 오셔서 각 주제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고 각 주제마다 아시아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형성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셨다. 강의를 끝나고 나서는 학생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주셨다. 아시아 공동체론의 여러 강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2가지는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자고 주장하신 미야지마 교수님의 강의와,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자고 주장하신 강태웅 교수님 강의였다. 미야지마 교수님 강의에서 교수님께서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한자, 불교, 유교와 같은 문화적 공통점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자고 주장하셨다. 특히 유교가 한중일 근대화에 가지는 색다른 의미에 대해 소개해주셨으므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한중일 유교 문화와 근대화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이 강의를 통해 유교 문화권에 놓여 있는 동아시아 국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반으로 서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동아시아 국가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한자, 불교, 유교라는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강태웅 교수님의 강의에서 교수님께서서는 문화, 특히 영화와 한류라는 매개체를 통해 동아시아가 하나가 되었던 2000년대 초반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유럽풍과 같이 아시아풍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동아시아라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주장하셨다. 교수님 말마따나 아시아풍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게 된다면 경제, 관광, 음식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세계에 아시아풍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일어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전체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문화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 공동체가 실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매 강의마다 각 분야에 있어 교수님마다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 공동체 형성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 강의에서 말하고자하는 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렇게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해서 각국 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를 절충하는데 있어 아시아 공동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공동체 형성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며 각 국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강의에서 항상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데 이를 통해 아시아 공동

체 형성에 있어 동아시아 삼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삼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훗날 이러한 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를 대비하려면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미래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아시아라는 지역에 대한 접근을 한다면 더 많은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아시아 공동체론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는 복전인 국제통상 과목 중 전공 선택 과목이자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말에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었다. 물론 한중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강의를 수강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앞서 말했듯 장학금과 유명 교수님들의 강의라는 말에 혹해 과목을 신청하긴 했지만 과목을 신청할 당시 고민을 많이 했다. 국제학부에서 새로 신설한 과목이기도 하고 과목 특성 상 채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에 수강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고민도 잠시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는 이 과목을 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명 교수님들이 오셔서 현재 아시아 각국의 분야 별 상황과 전반적인 세계의 흐름에 대해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서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던 내가 강의를 통해 아시아라는 유망한 지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강의를 통해 훗날 아시아의 발전가능성과 현재 국제 사회의 흐름에 대해 알 수 있어 매우 도움이 되는 과목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동일한 과목에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발제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청강을 해볼 생각이기도 하다. 아시아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는 과목이었고 좀 더 넓은 세계와 그 중심에 서있는 아시아에 대해 알고 싶은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 과목인 것 같다.